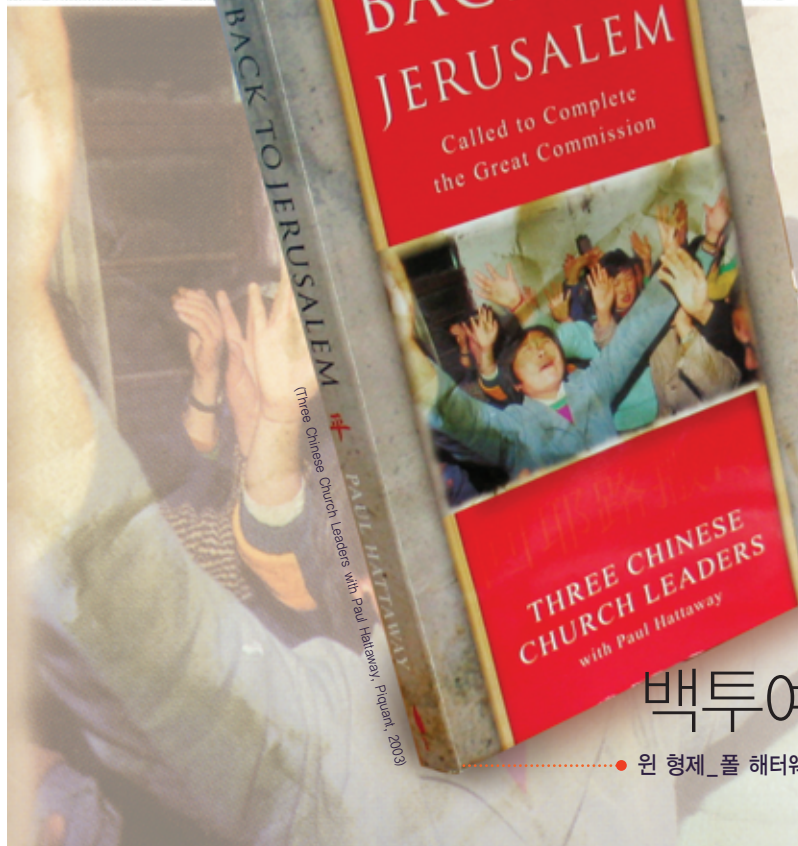


# BACK TO JERUSALEM

## 왜 '백투예루살렘'인가?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한 중국 지하교회의 담대한 비전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원 형제 · 수 형제 · 에녹 왕이 전하는 놀라운 비전과 용기



'백투예루살렘'이란 수천 명의 중국인이 가까이 죽기를 각오하는 비전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적어도 그 이유 정도는 알아야 하리라.

처음, '백투예루살렘 운동'에 관하여 들은 것은 1980년대에 중국에 갔을 때였다. 당시에 한두 명의 설교자들이 설교 중에 이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그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중국 교회의 열망을 나타내는 정도로 생각했다. .... 수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중국 각지에서 온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비로소 나는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이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꿈꾸며,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도 이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 '백투예루살렘'이란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게 주

신 사명으로 중국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 도시, 마을 그리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한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다. 이 지역의 사이에는 복음으로 정복되지 못하였으며, 영적으로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힌두교가 자리하고 있다. .... 2002년, 수많은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백투예루살렘'의 비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나에게 이 운동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책, 즉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백투예루살렘'을 향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이후로 주님이 중국 교

회에 주신 계획과 전략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바로 그들이 소원했던 바, 그 열매이다. 작가로서 내 역할이란 그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즉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형식을 갖춰 글로 소개하는 일이다. 이 책에 나오는 세 명의 주인공은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원 형제, 수 형제, 그리고 에녹 왕이다. 이 세 사람은 중국 교회 전역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며 그 중 두 명은 '백투예루살렘'을 위한 선교사 양성과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중국을 벗어나 살고 있다. .... 나는 여러분들이 백투예루살렘의 비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도전

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기까지 이 마지막 날에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며 이 사명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폴 해터웨이/머리말에서

'백투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  
'백투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불리며, 중국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이슬람권 나라와 불교 그리고 회교권 나라들을 선교하고 계속 서진하여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중국 지하교회의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인터뷰 Interview

《백투예루살렘》 공저자 폴 해터웨이

《백투예루살렘》에서 보면 죽은 줄만 알았던 어린 딸이 살아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에녹 왕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맞볼 수 있었습니다. 왜 중국에 이러한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터웨이 씨?

폴 해터웨이: 요즘에도 중국에서는 기적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이고 담대하게 복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주일에 교회에 사람 모으는 정도의 기독교로 변해 가고 있고 많은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교회 내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의 수천 명의 복음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외에는 아무 소유가 없고, 잃은 자의 구원과 중국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아무 열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을 태우는 갈망을 보시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적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채워 주십니다. 한 마디 덧붙인 것은, 대부분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기적을 강조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백투예루살렘》을 보면 해터웨이 씨께서는 중국 선교사역 중원 형제, 수 형제, 에녹 왕의

에도 여러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폴 해터웨이: 저는 세 사람 모두 깊이 존경합니다만, 원 형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 형제의 단순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엄청난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없이는 자신이 결코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적들과 자신을 대적하여 온갖 일로 중상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중략)

오늘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백투예루살렘 운동'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폴 해터웨이: 저는 하나님께서 백투예루살렘 비전으로 중국의 교회를 일으키신 이유가, 지

난 50여 년간 중국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전 세계 기독교에서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중국에 고립되어 엄청난 압박과 곤경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쓰시기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지하교회(가정교회) 성도들은 서양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처럼 오염되지 않고,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공산주의자든 힌두교인이든 세상 어디든 적합하게 전할 수 있는 단순한 메시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는 2005년 2월 22일, 폴 해터웨이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전문은 <교회보> 3월호에서 볼 수 있다. 폴의 사진은 중국 사역 보호를 위해 실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따라 게재하지 않는다.)

진행 · 정리 ● 한미영 (myhan@hsbooks.com)

### 백투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

● 원 형제\_폴 해터웨이 외 지음/류응렬 옮김/A5신변형/사진 수록/3월초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중 한사람 '수 형제'가 지난 해 12월 홍성사를 방문하였다.



홍성사 아침 묵상 시간에 참석하신 수 형제와 유 형제



◀중국 시냇변 대표 수 형제와 중국 학원 사역자 유 형제



▶관리부 이남진 이사님과 수 형제

### 온고지신 溫故知新

## 이제 다시 김성일, 그의 땅끝 소설을 권한다.



땅끝에서 오다

민음의 글들 22/A5신/360면/8,000원

땅끝으로 가다

민음의 글들 30/A5신/360면/8,000원

땅끝의 시계탑

전2권/민음의 글들 88 · 89/A5신/각권 328면/각권 6,000원

땅끝의 십자가

전2권/민음의 글들 121 · 122/A5신/각권 296면/각권 7,500원

빛으로 땅끝까지

전2권/민음의 글들 145 · 146/A5신/각권 308 · 324면/각권 6,000원

### 지면안내 紙面案内

☞-왜 백투예루살렘인가?

01

- , £-레프트 비하인드 5

02

☞

- 1.우리와 하나님
- 2.키워드로 풀어가는 청년사역
- 3.예수님의 마음을 달아가는 삶
- 4.황진이
- 5.심판과 은혜
- 6.오디오 새신자반

03

£

- 1.백투예루살렘
- 2.이슬람 신화 깨기, 무슬림 전도하기
- 3.오직 나의 신으로(가제)

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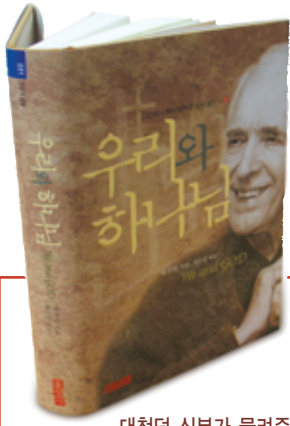








1




대천덕 신부가 물려준 신앙 실천서 ②  
**우리와 하나님**  
*We and God*

**성경을 믿는 데는 보수주의자처럼, 실천하는 데는 진보주의자처럼!**  
“대 신부님의 메시지는 이론적인 강해라기보다는 ‘해 보라’ 하는 식의 일종의 강한 도전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대로 ‘시도해 보느’ 실험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건축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그것은 그분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예수님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검증해 본 성경적인 원리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그저 머리로 이해하거나 단지 설교하는 데 참고로 하는 정도로 그치다면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의미가 되새릴 것입니다.” - ‘영고 나서’에서

■차례 1부 기도생활: 예수님의 기도, ……속사람 치유의 기도  
2부 교회생활: ……공동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의 토착화  
3부 사회생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경제원리

대천덕 지음/예수원 역음/믿음의 글들 221/A5신변형/480면/16,800원

2



천안중앙교회 청년 부흥의 네 가지 키워드  
**키워드로 풀어가는 청년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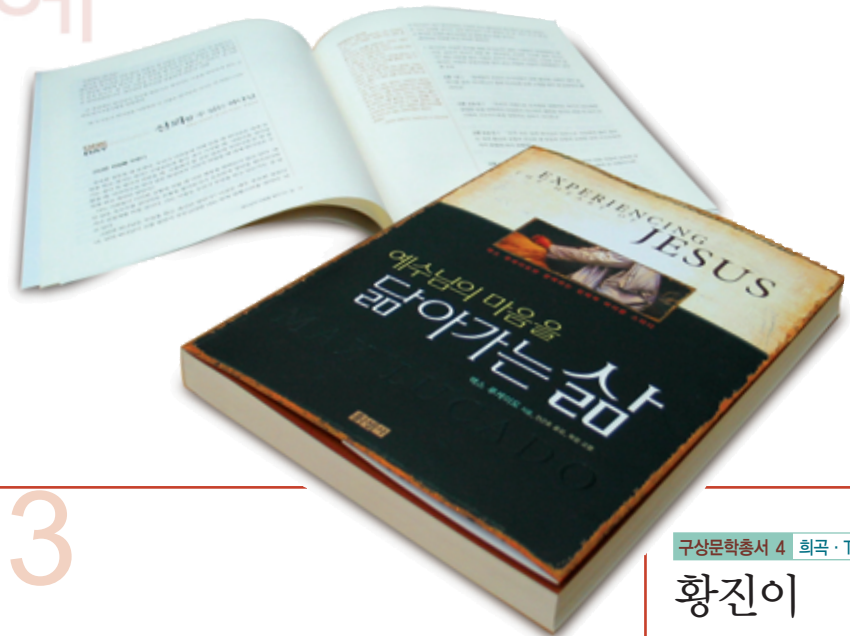
**청년사역, 핵심을 붙잡아라**  
“청년사역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숙고하며 기도하던 중 예배(Worship), 전도(Evangelism), 양육(Education), 기도(Prayer) 이 네 가지 요소를 핵심가치라고 보았고 이 네 가지를 앞으로의 청년사역에서 우선순위로 두기로 하였다.

Worship [예배]→ 감격,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Evangelism [전도]→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복음 증거  
Education [양육]→ 청년 리더로 자라가기 위한 양육  
Prayer [기도]→ 깊이 있는 기도

‘위프’(WEEP)는 ‘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WEEP을 중심으로 천안중앙교회 청년부의 정체성을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청년’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사역 초기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눈물을 주십시오. 애통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에 참 많은 눈물을 주셨다.” - ‘프롤로그’에서

양형주 지음/A5신변형/480면/9,000원

3




**예수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삶**

**소망을 안겨 주는 성경공부로의 초대**  
“이 공부의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이 공부가 당신에게 소망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각각의 사람은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목표는 우리를 취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 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도록 격려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 맥스 루케이도

맥스 루케이도 지음/A4변형/464면/25,000원/본문 2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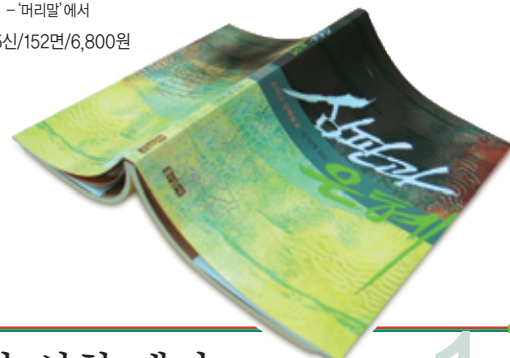
4



구상 시인의 문학총서 네 번째,  
희곡·TV드라마·시나리오 모음집!  
“이렇듯 그 작품들을 한 권으로 묶으면서 되읽고 느끼는 바이지만, 이 속에 담긴 존재나 당위(當爲), 즉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나의 삶을 통한 해답(患答)이 전부 들어있다 하겠고, 또한 나 나름의 ‘오늘에 서부터 영원을 사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나 하겠다.”-저자 머리말에서

구상 지음/A5신변형/400면/양장

5




국내 유일의 단권 소신지서 강해 시리즈 ⑩ **스바나 강해**  
**심판과 은혜**

**그럼에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스바나서는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크게 혼드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혼드시고 주위 나라들도 혼드시켰습니다. 요 줌도 하나님은 세계를 흔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테러로 흔들고 계시며 북핵 문제로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능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에서

김서택 지음/A5신/152면/6,800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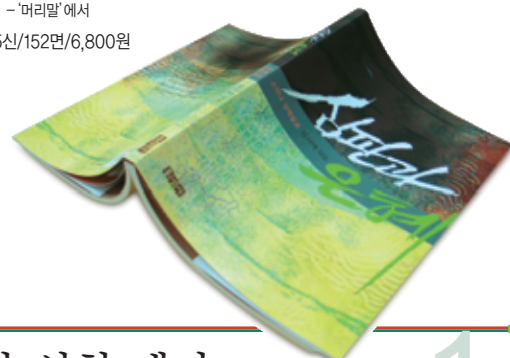


**Audio** **새신자반**

**새신자 양육·기초 신앙 교육의 믿음직한 길잡이**  
“[Audio\_새신자반]은 홍성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10회에 걸쳐 열린 이재철 목사의 ‘새신자반’ 특강’을 싣을 목적으로 엮었습니다. ‘새신자반’은 저자의 주님의교회 목회시절부터 뜨거운 호응과 참여로 널리 알려진 새신자 및 초신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그간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한인 교회에까지 꾸준히 소개되어 왔으며 단행본으로도 정식 출간되어 한국 교회와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오디오 테이프가 녹음 시기가 오래된 데다 음질이 떨어져 끊임없는 개신 요청이 있어 온 차에, 홍성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가진 ‘새신자반 특강’을 싣을 특별한 이유로 [Audio\_새신자반]을 펴내게 된 것입니다.” - ‘일러두기’에서

이재철 지음/양장 케이스/Tape 20개/각 60분/49,000원/강의안 첨부

1



**이슬람 신화 깨기, 무슬림 전도하기**  
중동 전문가 김동문의 이슬람 문화·선교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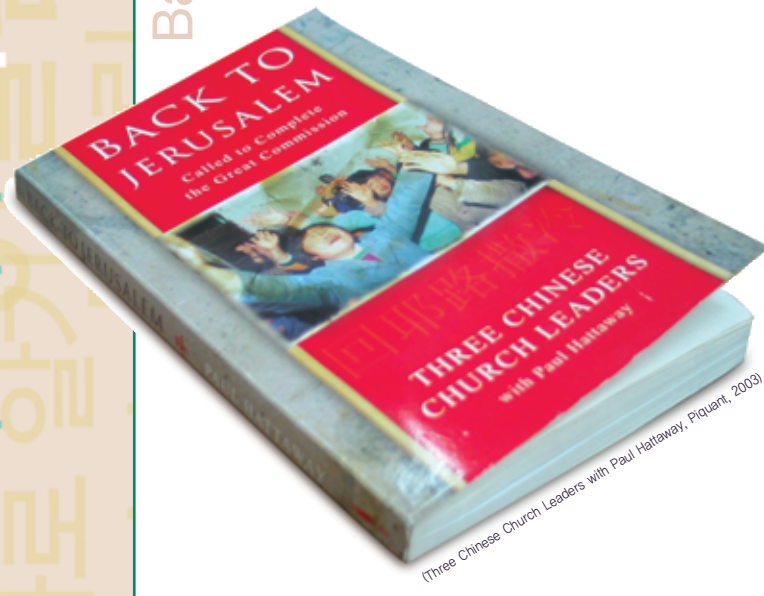
**너희가 이슬람을 아느냐!**  
‘할람’과 ‘하람’의 차이?  
거짓말은 되지만 화내는 것은 안 된다?  
히잡과 차도르를 벗어던진 이슬람 여인들의 배꼽춤?  
동생애가 판치는 거리?  
중동 지역 전문가로 《한겨레 21》《미디어 오늘》 등 여러 언론 매체에서 발 빠르게 중동 기사를 전해 온 김동문 선교사. 그가 14년 이슬람 사역을 중간점검하며, 최충우를 현장 속에서 직접 겪으며 얻어 낸 ‘이슬람 문화 속에서 무슬림 선교 제대로 하기’의 모든 열정을 이 책에 쏟아 놓았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이람 이슬람 세계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자 했다. 종교적인 편견을 넘어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나누고자 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을 바로 알고 무슬림을 바로 섬기기 위한 새 시대 사역자들을 기대한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꿈꾼다.” - ‘맺음말’ 중에서

책임편집자 ● 한수경(refuge@hsbooks.com)

김동문 지음/A신변형/250면/예상/사진 수록

2



**Back to Jerusalem**  
**백투예루살렘**

**감동을 넘어, 이제 부로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서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으셨다면, 이제 (백투예루살렘)에서는 ‘응답’할 차례입니다!

“2000년 3월은 복음이 전세계로 침투해 들어가는 중요한 달로 기억될 것이다. 이 달에 39명의 중국 선교사들이 이웃 불교국가에 파송되었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복음은 서방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널리 퍼져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제 복음을 서방과 남방으로 파급시켜 전 세계의 미전도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돌아갈 것을 보기를 열망하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다. 이것은 살아 있는 교회의 생생한 비전인 동시에 다가를 세대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힘이 될 것이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머리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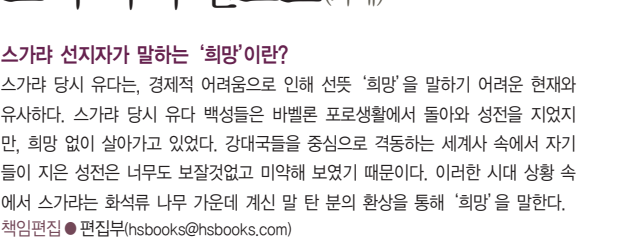
“이것은 살아 있는 교회의 생생한 비전인 동시에 다가를 세대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힘이 될 것이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피터 메이트/OM 선교회 국제책임자

- ‘백투예루살렘’에 대한 찬사에서 발췌

책임편집자 ● 김혜수(khs@hsbooks.com)

원 형제\_폴 해터웨이 외 지음/류응렬 옮김/A5신변형/사진 수록

3



국내 유일의 단권 소신지서 강해 시리즈 ⑪ **스기라 강해**  
**오직 나의 신으로**(가제)

**스기라 선지자가 말하는 ‘희망’이란?**  
스기라 당시 유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통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현재와 유사하다. 스기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었지만,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격동하는 세계사 속에서 자기들이 지은 성전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스기라는 화석류 나무 가운데 계신 말 단 분의 환상을 통해 ‘희망’을 말한다.

책임편집 ● 편집부(hsbooks@hsbooks.com)

김서택 지음/A5신변형

근간

2



**Back to Jerusalem**  
**백투예루살렘**

**감동을 넘어, 이제 부로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서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으셨다면, 이제 (백투예루살렘)에서는 ‘응답’할 차례입니다!

“2000년 3월은 복음이 전세계로 침투해 들어가는 중요한 달로 기억될 것이다. 이 달에 39명의 중국 선교사들이 이웃 불교국가에 파송되었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복음은 서방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널리 퍼져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제 복음을 서방과 남방으로 파급시켜 전 세계의 미전도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돌아갈 것을 보기를 열망하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다. 이것은 살아 있는 교회의 생생한 비전인 동시에 다가를 세대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힘이 될 것이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머리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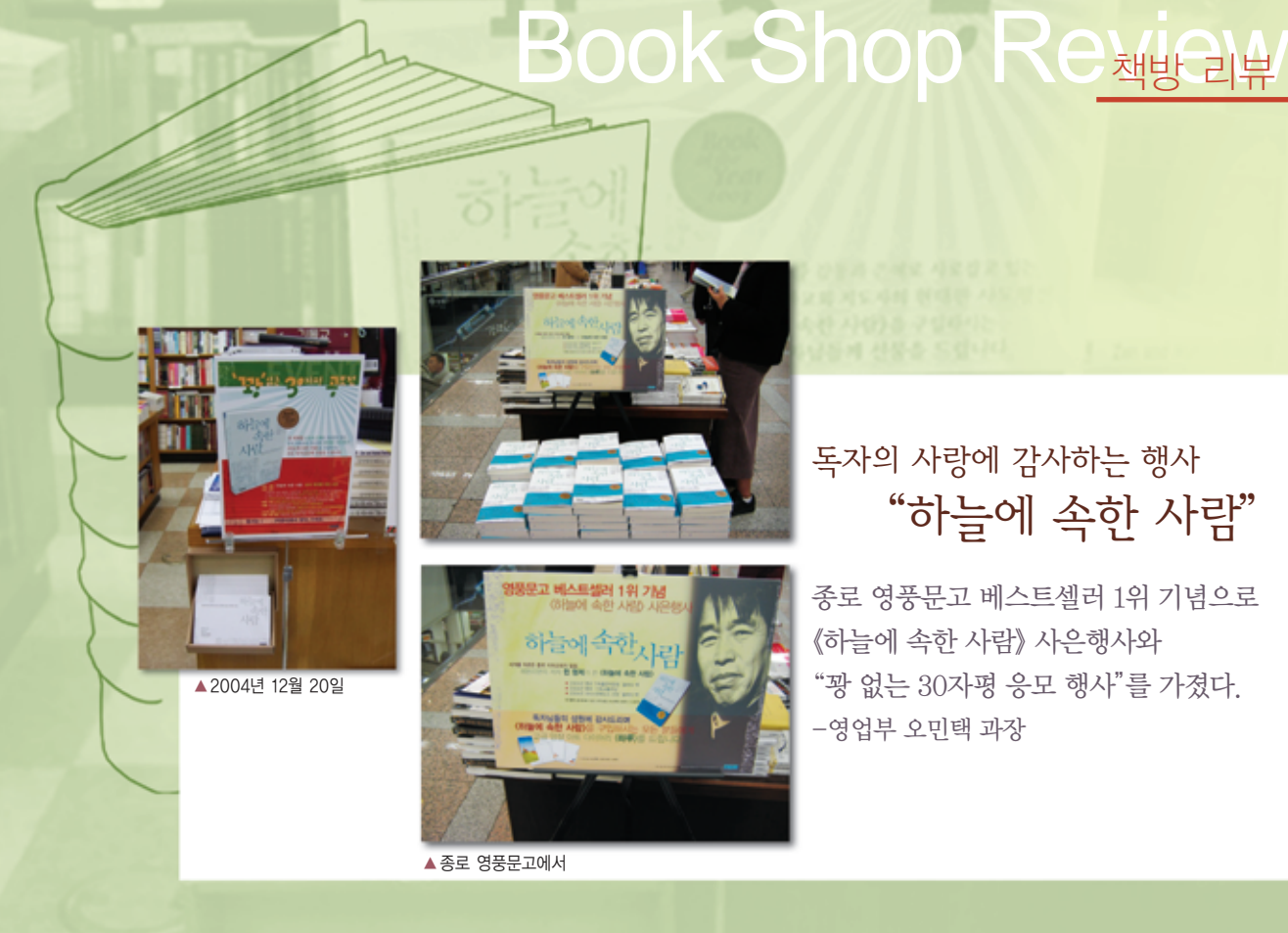
“이것은 살아 있는 교회의 생생한 비전인 동시에 다가를 세대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힘이 될 것이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피터 메이트/OM 선교회 국제책임자

- ‘백투예루살렘’에 대한 찬사에서 발췌

책임편집자 ● 김혜수(khs@hsbooks.com)

원 형제\_폴 해터웨이 외 지음/류응렬 옮김/A5신변형/사진 수록

Book Shop Review 책방 리뷰



독자의 사랑에 감사하는 행사  
**“하늘에 속한 사람”**

중로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1위 기념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사은행사와  
“광 없는 30자평 응모 행사”를 가졌다.  
-영풍부 오민택 과장

▲ 2004년 12월 20일

▲ 중로 영풍문고에서



홍성수